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과 격려 속 최장거리 완보

☎ 박봉영 기자|이경민 기자 | 🕒 승인 2021.10.07 14:00 | 📄 호수 3686 | 💬 댓글 0



푹푹 찌는 날씨에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걷는 순례단 발걸음이 가볍지 만은 않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를 맞은 10월7일. 천리순례단이 지안재를 넘어 함양 시내로 접어들자 이른 새벽부터 순례단에게 흔쾌히 앞마당과 화장실을 내준 정이숙 사장이 되레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처처가 고생길이지만 가장 큰 고역은 역시나 화장실. 불교계 언론 보도를 보고 천리순례단이 함양 지역을 지난다는 걸 알게 된 정 사장은 자주 다니는 사찰 주지 스님에게 부탁해 순례 일정을 미리 확인,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이들의 정체는? Clas...

포토뉴스



색선별 최신기사

"SNS어 뉴스



불교신문TV

짜장

짜장에 진심인 사

많이 본 기사

- 1 [삼보사찰 천리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불교계 매도?
- 10 관중 없는 비디



최신뉴스

- [간강칼럼] <9> 백...
- [동정] 임법스님, 삼...
- [문화시] '함께 했기
- [찰나의 화두] 봉천...
- [사회복지사 편지] <
- [원허스님의 아름다운
- [수미산정] 작지만 <
- [천수천안] 녹색사찰
- "대학발전이 곧 건...
- [사설] 개막일 손꼽...

정 사장은 “한번쯤은 우리 주유소 근처를 지날 것 같아 어제 함양 보림사 스님에게 부탁해 숙소를 알아줬다”며 “산 중턱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줄 알았으면 화장실이 아닌 우리 주유소 마당을 통째로 내어 줬을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이 신심깊은 불자라는 것을 전해들은 상월선원 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이날 정이숙 사장에게 직접 염주를 선물하곤 다시금 발길을 재촉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도 순례단을 위해 주유소 앞 마당과 화장실을 개방한 정 사장은 순례단이 떠나는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정성스레 합장 인사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쉬움을 표현하던 정 사장은 “따뜻한 차 한잔도 대접 못하고 보내드려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큰스님들이 걷는 걸 보니 우리 한국 불교가 산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불자로서는 더없이 기쁘다”고 했다.



함양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이숙 사장님. 정 씨는 천리순례단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나와 주유소 마당과 화장실을 개방했다.



순례단을 배웅하고 있는 정이숙 사장님.

종단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 국회 앞 1인 ...
전국 해인총림 해인사, 개산 1219주년 역대조...
사회&국제 불교활동가지원기금 '제18회 불교...
인물 [동정] 임법스님,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
대중공사 [문화사] '함께' 했기에 의미가 크다
수행&신행 참선지도사 명상지도사 자격시험 ...
문화 [건강칼럼] <9>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과...
기획&연재 관중 없는 비대면이지만 생명나눔 ...
출판&문학 지율스님 태아영가 천도재 30년 ...
학술&문화재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이영진...
복지&상담 병원진료에 함께 갈 '시니어 돌봄...



법공양 (기획PR)



이날은 이번 순례 일정 중 최장거리인 30km가 예정돼 있는 상황. 폭폭 찌는 날씨에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걷는 순례단 발걸음이 가볍지 만은 않았다. 장시간 걷기엔 이제 좀 적응이 됐지만 하루에도 수십번 바뀌는 온도차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걷는 일이 녹록치 만은 않았던 까닭이다.

새벽3시 일어나 장장 7시간을 걸어온 순례단이 허기로 지칠 때쯤 포교원과 사단법인 다나의 밥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밤 서울을 출발해 밤새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본 후 공양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과 채계장을 준비한 것.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스님도 포교원 직원들과 함께 먼 걸음을 했 으며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도 포교사단과 함께 응원을 나왔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한국불교계를 이끄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원 만 회향을 기원하겠다”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사부대중의 응원과 격려 속 천리순례단은 이번 일정 가운데 최장거리인 30km를 무사히 완보했다. 인근 캠핑장에서 하루를 지낸 순례단은 다음날인 10월8일 바래기재와 살피재 등을 걸어 거창으로 향한다.



순례단이 함양군 안의면 가을 너른 들판을 걷고 있다.



연꽃길을 걷고 있는 순례단.



뜨거운 햇빛은 걷기를 한층 더 힘들게 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이 순례단을 환영하고 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코스모스 길을 걷는 순례단.



가을이 한창임에도 순례단에겐 한여름 날씨나 마찬가지다.



꽃길을 걷는 순례단.



순례에 앞서 입재하는 순례단.



새벽길 불빛에 의지해 걷는 순례단.



거리두기를 하며 걷고 있는 순례단.



지안재를 넘어 아랫 마을로 향하고 있다.



김나현 참가자. 베트남 출신으로 남편과 두 딸의 허락을 받아 어렵게 19일 순례에 동참했다.

“마음속으로 삼보에 대한 예경 올립니다”

■ 인터뷰 / 베트남 출신의 김나현 참가자

천리순례 참가자 가운데 유독 왜소하고 말없는 이가 눈에 띈다. 송광사 신도 김나현 씨다. 김나현 씨 본래 이름은 쑹응 티 평리. 17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건너 왔다. 베트남 불자 모임에 나갔다가 지난해 우연히 송광사 법회에 참석하면서 열혈 신도가 됐고 매주 1~3회 자택이 있는 전주에서 순천 송광사까지 약 1시간을 달려 기도를 올리고 봉사를 하고 있다.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있었다는 김나현 씨는 이번 순례에 참가하기 위해 남편과 두 딸에게도 사전 동의를 구했다. 김나현 씨 간절한 모습에 가족 모두 순례를 응원했다고. 김나현 씨는 “방송에 나온 순례단을 보고 마음 속 깊이 감동을 받았다”며 “올해는 특히 송광사에서 출발해 해인사 통도사를 두 발로 걸어서 참배한다는 것을 보고 꼭 참가하고 싶었다”고 했다.

처음 3일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장시간 걷기 경험이 없는데다 개별 참가 신청으로 정보가 없어 다른 이들 보다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파스나 신발 등 사전 준비도 부족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점차 줄어들고 같은 조에 있는 참가자들이 김나현 씨를 특

별히 챙기면서 걱정은 많이 줄었다. 초반 걱정해 비해 순례 중반에 접어든 지금, 김나현 씨는 매일 삼보에 귀의하고 예경하는 마음으로 걷는다고 했다. 김 씨는 “사찰에 갈 때마다 삼보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이라며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함께 걷고 있는 참가자 모두 건강히 순례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양=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사 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하며...무...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미를 다시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다라...
- ▶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떨과 평생 한번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고 물집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② “우리 모두가 부처...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금강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깨달음 얻...
- ▶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
- ▶ [영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한국불교 중흥...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새 운동.....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은 총무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고 50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일...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비 넘어...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